

# 韓國金剛經信仰의 大衆化

趙 純 香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金剛經을 所依經典으로 하고 있는 佛教敎團은 敎的인 面이나 禪的인 側面 모두가 金剛經을 그 信仰對象으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學問的인 研究經典으로 손꼽고 있다. 그 歷史的 深遠과 敎理的, 思想的 方面을 研究함은 여기서는 차치하더라도 信仰類型과 變相의 受容으로 본 그 本質을 밝히고자 한다.

韓國 經板에는 變相으로 기록된 것이 많고 이것이 庶民信仰의 根柢이로 嚮導되고 있음이 事實이다. 깊은 佛教敎理를 視覺的이고 繪畫的인 側面으로 깨달음의 境地로 이끌려고 노력하였던 先人들의 布敎方法을 研究하여 오늘날도 難解하다고 하는 佛敎를 새로운 眼目으로 보기 위하여 誠奄博物館所藏 金剛般若波羅蜜多經과 作者未詳의 金剛經感應傳을 대본으로 하여 研究檢討하고자 한다. 단 繪畫史的인 面 보다는 金剛經 信仰 大衆化의 과정에 役점을 두고 살펴 볼 것임을 미리 확실하게 두 고자 한다.

## 一、金剛經 流通과 大衆化

### (一) 金剛經의 流通

金剛經이 우리나라에 처음 傳來된 時期는 新羅 眞興王 在位年間(五四

〇~五七五)이라 생각된다<sup>①</sup>. 卽 眞興王 二六年(五六五)에 陳의 使臣 劉 思와 僧明觀이 佛敎經典과 論藏 一七〇〇餘卷을 齋來한 事實<sup>②</sup>과 同王 三七年(五七六)에 求法次 中國에 간 安弘法師가 歸國할 때 大乘經典인 楞伽經과 勝鬘經을 齋來한 事實<sup>③</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金剛經도 이때를 前後하여 齋來되었던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金剛經이 八世紀 以前의 新羅時代에 이미 널리 보급되어 研究된 事實을 여러 記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卽 金剛經에 對한 疏, 料簡, 贊 述, 記 등의 目錄이 傳하여<sup>④</sup> 當時 新羅 學僧들이 金剛經을 大端히 重要하게 여겨서 研究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이 八世紀 以前부터 이미 新羅에서 金剛經 研究가 활발하게 進行되었었다면 新羅下代에 禪宗이 傳來되기 前부터 金剛經이 研鑽되었던 것으로 推察할 수 있다. 또한 三國遺事에 보이는 望德寺僧 善律의 靈驗이야기 역시 統一新羅時代에 般若系統의 金剛經信仰이 널리 流行한 중요한 記錄이 되는 것이다(本文 二의 (一) 참조) 더욱이 益山 王宮里五層塔 出土舍利函과 같이 나온 國寶 一二三의 金版, 金剛經은 一〇世紀經으로 추정되며 當時의 金剛經 流通을 實證하는 現存하는 例로서 매우 貴重한 資料이다<sup>⑤</sup>.

高麗 大覺國師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의하면 續藏經에 많은 金剛經의 疏, 鈔가 入藏되어 있고<sup>⑥</sup> 또한 再雕高麗大藏經에도 五種의 金剛經이 포함되어 現存하여 오는데<sup>⑦</sup> 특히 鳩摩羅什譯本이 우리나라에 널리 普及되었다.

韓國 禪宗의 기반을 세운 普照國師(一一五八~一二一〇)는 金剛經을 受持讀誦할 것을 大衆에게 권하였고<sup>⑧</sup> 그의 首弟子인 眞覺國師 慧誥(一一七八~一二三四)은 金剛經贊을 저술하였다. 그러므로 金剛經은 禪宗의 宗典이 되었는데 그것에 다시 傳大士, 六祖, 宗密, 道川, 宗鏡의 五家解를 合編하여 하나의 指針書를 만들었다는 것은 金剛經이 韓國佛敎의 所依經典으로 삼게 된 이유라 하겠다.

金剛經의 活發한 流通이 民衆佛敎 擴大를 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朝鮮 王朝에 있어서 執權 儒生들의 抑佛政策에도 不拘하고 金剛經의

연구와 그普及이 계속되었다는事實에서도 추측된다. 특히 金剛經五家解 등이 많이 刊行되며 또한 諺解本이 刊行된다<sup>⑩</sup>. 이러한 諺解本은 佛敎經典을 一般大衆이 더욱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게 되었고 佛敎大衆化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겠다. 朝鮮王朝 五百年 동안에 五〇餘種의 金剛經關係文獻이 譯刊되었고 金剛經의 五家解, 諺解本이 주로 印出普及되었음을 보아 朝鮮時代에 金剛經이 가장 많이 읽히고 研究되고 刊行된 것이라는 逆說도 成立된다. 한편 佛敎가 民衆佛敎로 土着化한 오늘날에 있어서 金剛經이 重視되고 있는 事實은 너무나 當然한 現象이다.

## (二) 金剛經 變相圖

變相圖란 佛敎經典의 敎理內容을 그림으로 表現한 것으로 經의 理解를 돕기 위한 한 方便인 동시에 책을 장엄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일반그림과는 다른 性格을 띤다. 이러한 變相圖를 통해서 보다 쉽게 그리고 바르게 一般大衆들은 經文을 理解하게 되는 것이다. 唐代에 盛行했던 敎化僧이나 傳講僧들은 地方을 巡廻할 때 이 變相圖를 가지고 다니면서 一般大衆들에게 通俗的으로 平易하게 經文을 解說하는 것이다. 이렇게하여 變相圖는 佛敎를 庶民生活과 親密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金剛經 變相圖는 대체로 다른 經典과 마찬가지로 經의 제일 첫머리에 經의 大意를 나타내는 變相圖 一枚만이 붙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精神文化院所藏의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一六世紀)의 變相圖(圖 1), 이 論文 二의 (三)에 소개한 感應傳과 合本으로 되어있는 鳩摩羅什 澤本 金剛經의 變相圖(圖 2), 燉煌本 金剛般若波羅蜜多經(咸通 九年 A.D.868) 變相圖(圖 3)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소개하는 誠奄古書博物館藏 高麗板圖繪金剛經(寶物로指定됨)은 變相圖가 經의 첫부분만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經 전체의 內容을 일일이 圖繪로서 說明하고 考證한 중요한 資料로서 金剛經 流通에 있어 大衆의 敎化를 위한 중요한 敎材로 쓰여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金剛經은 帖冊으로 上下二分되어 上段에는 經內容을 說明하는 圖繪가 있고 全幅의 半인 下段에는 經本文을 記入하고 있다. 이러한 特異한 形態의 圖繪金剛經으로는 高麗朝에 해당되는 例는 없고 그보다 二〇〇年後 朝鮮王朝時代에 만들어진 安東 鶴駕山 廣興寺板(一五七〇年刊)이 있을 뿐이다.

誠奄博物館所藏의 圖繪金剛經은 金剛經의 第一分으로 부터 第三十二分까지 完全하게 原形을 지니고 있다. 紙質은 古樸하여 古色이 蒼然하고 그 變相圖는 靈山會相說法圖를 비롯하여 各品の 核心이 되는 重要한 主題에 對하여 諸高僧들의 要解에 따라 그 內容을 視覺的이고 說話的으로 理解할 수 있도록 그린 것을 板刻한 것이다. 그리고 卷末에는 護法善神을 板刻하여 莊嚴하게 마무리 하고 있다. 全部 四八枚의 圖繪로서 그림과 內容을 함께 讀誦하게 되었고 하나하나 考證人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 類例없는 稀貴한 特徵이라 할 수 있다.

그 刊記에 依하면 恭愍王十二年(一三六三, 至正二十三年) 南原에서 知南原府事 薛師德과 判官兼勸農使 金英起의 主管아래 書員 信之가 經文을 쓰고 書員 法戒가 圖繪를 그렸으며 信明, 法空이 板畫를 彫刻하였다(註<sup>⑪</sup>) 地方官板이므로 刀刻이 精하지 못하고 印刷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나 참으로 보기드문 貴重한 高麗本이다.

本論文에서는 前後二板만 紹介하고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研究하여 全貌를 考究하고자 한다.

### 初葉 第一面(圖 四)

이것은 經典의 가장 첫부분에 해당되는 곳으로 說法의 場所와 因由分을 圖示한 것이다. 右上에 舍衛城 二層城門이 보이고 後面에 放光, 右側에 瑞雲이 서리고 있어 聖人이 居하는 聖所를 表現하고 있다.

釋迦佛은 侍衆과 더불어 坐定하고 獅子를 탄 文殊와 코끼리를 탄 普賢의 二脇侍菩薩이 나타나고 其他 聽衆이 雲集함에 須菩提가 大衆 가운데서 일어나 右肩의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合掌하여 佛陀에게 恭敬한을 表示하고 佛法을 묻는 光景을 그린 것이다.

그의 背面에는 佛陀의 放光과 瑞雲이 서려 있어서 그의 神威力과 金剛經 內容의 壯嚴함을 表示하였고 또 胎, 卵, 濕, 化의 四生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佛敎의 生物, 發生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점이라 할 수 있다.

### 末葉 護法善神(圖 5)

經의 끝부분으로 刊記와 護法善神이 나타나 있다. 護法善神은 佛經의 卷末 혹은 卷頭에 모시는 神將像으로 或은 韋提希(Vardhi)라고도 한다. 韋提希는 摩揭陀國頻婆羅王의 妃이고 阿闍世의 母이다. 그는 阿闍世를 위하여 靈鷲山을 向하여 世尊에게 說法을 請하였다. 이에 世尊은 靈鷲山에서 法華의 說法을 中止하고 王宮에 가시어 觀無量壽經을 說하였고 고한다. 이로 因하여 韋提希는 護法神의 象徴이 되고 特別 典籍의 守護神으로 되어 있어 佛經에는 반드시 모셔 주는 것이다.

## 二、金剛經 靈驗傳의 發達

### (一) 靈驗傳의 成立

金剛經이 韓國의 佛敎信仰가운데 通俗의 民間信仰의 對象이 되었던 事實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또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經典信仰은 祈雨, 天災地變, 消災, 外侵으로 부터 保護를 비는 등 道場信仰을 流布시켰고<sup>12)</sup> 한편 佛敎 經典을 書寫, 彫板하는 佛事 역시 그 自體가 깊은 信仰의 功德行爲로 믿어졌다. 이는 곧 經典이 지닌 敎學體系나 佛敎思想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經典의 內容에 근거하여 時代的 및 地域的인 與件에 따라 혹은 民間社會의 通俗的인 性格에 따라 佛敎信仰은 變形되어서 그 社會에 受容되어 온 것이다.

이와같이 信仰形態의 變形 혹은 信仰定着過程에서 特定한 經典에 對한 神秘的 事件들이 나타나고 靈驗의 인 事實이나 說話가 發生되어 이러한 것들은 民間의 愛好를 받으며 일정한 形態의 靈驗傳, 持驗傳, 혹은

感應傳 등으로 수집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靈驗傳은 政治秩序가 어지럽고 經濟的 混亂이 계속되어 國庫가 고갈된 末世의 現象에서 크게 流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北으로 부터의 紅巾賊의 侵入과 南으로 부터의 倭寇의 猖獗 등 外患과 貴族과 寺院의 土地兼併으로 國庫가 고갈되어 經濟的 混亂이 一層加重되었고 新·舊對立의 갈등 등으로 民心이 크게 이완되었던 高麗末葉의 社會的 混亂에 편승하여 靈驗傳으로서 金剛經信仰이 크게 流行되었던 事實은 當然한 일이었을 것이다<sup>13)</sup> 即 高麗末 禰王 四年(一三七八)에 金剛經疏纂要助顯錄 가운데 몇개의 靈驗記事가 收錄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事實을 端的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流布되었던 金剛經 靈驗傳은 모두 中國사람의 生活體驗에서 나온 說話만이 收錄되어 있다<sup>14)</sup>. 그러나 法華靈驗、華嚴靈驗傳等에는 新羅時代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靈驗談話가 함께 收錄되었던 事實을 考慮해 볼 때 金剛經 靈驗談話 역시 우리나라의 信仰體驗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은 韓國의 人 金剛經 靈驗傳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眞覺國師 慧謹은 金剛經贊을 짓고 贊에 일일이 異跡靈驗을 들어 說明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傳하지 않아 韓國의 人 靈驗談을 기록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sup>15)</sup>.

우리나라의 金剛經信仰에 대한 가장 오래된 記錄이 唯一하게 三國遺事에 傳하여 오고 있는데 卷五 善律還生條에 보면

「望德寺僧 善律은 布施받은 돈으로 六百般若經을 造成하려다 다 이루어 못하고 갑자기 閻羅國의 使者에게 잡혀 冥府에 이르렀다. 冥司가 묻기를 「너는 人間에 있을 때 무슨일을 했느냐」고 했다. 「貧道는 만년에 大品般若經을 이루어 하다가 功을 이루지 못하고 왔읍니다.」 「너의 壽籤에는 이미 목숨이 끝났으나 뛰어난 소원을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人間世上에 돌아가 寶典(般若經)을 完成시키라」하고 놓아 주었다. 善律은 冥府에서 돌아오던중 한 女人의 請을 받는다. 그 女의 父母는 金剛寺의 논을 빼앗았기 때문에 冥府에 잡혀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 女人은 이미 一五年前에 죽었는데 彼女の 請대로 해주고 명복을 빌어 苦惱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그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하며 般若經을 도와 이룩하게 한다. 經帙은 지금 慶州의 僧司書庫 안에 있는데 해마다 봄 가을이면 그것을 펴서 轉讀하여 재앙을 물리친다는 것이다.』

이 靈驗說話는 金剛經 대신에 般若經이라 되어 있으나 그것은 같은 系列의 經典이므로 同一思想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經典을 雕成한 功德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點, 金剛寺의 논을 誦친 罪로 冥府에 떨어졌다가 봄, 가을에 이 經을 읽으므로서 재앙을 물리친다는가 하는 金剛經의 靈驗이 그대로 表現되고 있다. 이 도록 훌륭한 靈驗說話가 三國遺事에 記錄되었다는 事實은 韓國에서 이룩된 靈驗傳이 아직 한卷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 이 時點에서 자못 큰 意義가 있다고 본다. 즉 三國遺事가 異民族의 支配下에서 民族의 危機를 克服하기 위하여 이룩되었다는 傳聞등기가 金剛經의 靈驗을 통한 佛敎大衆化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現在 우리나라에 流布된 靈驗傳은 그 起源을 中國에 두고 있으며 金剛經持驗記, 金剛經感應傳等 상당한 量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靈驗記의 內容中 가장 많은 說話는 冥府關係의 說話이고 다음으로 延壽, 治病, 祈雨, 免刑, 免災, 免溺에 관한 것들이다. 이러한 說話의 主人公 背景은 모두 中國에 根源을 두고 있기 때문에 中國의 佛敎의 民間信仰의 反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中國의 社會的 性格이 韓國의 庶民社會와 별 다른 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마찰없이 그대로 中國의 靈驗傳이 普遍的으로 受容되었다고 보겠다. 또한 中國의 경우 靈驗傳의 대부분이 微官末職의 在家信者들에 의해 編纂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러한 作業을 할 在家信者들의 知識階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固有의 靈驗傳으로 發展하지 못한 것이라고 類推하여 본다.

(二) 靈驗傳의 內容

中國에서 傳來된 金剛經 靈驗傳은 상당한 量에 달하고 있으며 그 成立과정도 단순치가 않다. 우리나라에서 流布되었던 金剛經持驗記는 朝鮮 肅宗期(康熙 二五, 一六八六) 刊行된 것으로 淸의 周克復 撰述인 金剛經持驗記에서 恣意로 六二篇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諺解本도 나와서 民間에 流布되고 있는데 現在의 諺解本들은 靈驗傳의 內容에 關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諺解하는 일 自體를 功德으로 생각한 흔적이 뚜렷하다. 恣意的으로 첫부분 一九篇을 뽑아 國譯한 경우가거나 단지 三篇만을 書寫한 것도 있어 그 作業自體를 信仰化한 경향이 명백히 들어나고 있다.

金剛經感應傳 역시 우리나라에 流布된 靈驗傳인데 著者未詳으로 元·明頃에 成立된 中國記錄이다<sup>⑩</sup> 本論文에서는 주로 金剛經感應傳의 內容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金剛經感應傳은 金剛經 信仰者의 靈驗事跡을 蒐集한 것으로 梁의 琰法師로부터 始作하며 隋, 唐, 宋, 및 그以後까지 僧俗 四十人에 대한 靈驗談을 蒐集記錄한 것이다. 各 靈驗談은 一括의인 年代順으로 엮여졌으며 그 內容을 살펴보면 現實生活과 直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延壽, 愈疾, 登科, 生子, 免溺, 免刑, 免畜, 避邪, 化賊, 還陽, 生天, 歸西, 等の 內容은 주로 祈福, 治病을 專門으로 하는 民俗信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庶民生活의 一部分이 된 民俗信仰위에 金剛經信仰이 놓여졌기 때문에 아무런 抵抗없이 佛敎가 받아들여지고 土着化되어 간 것이다

感應傳은 전부 四〇人의 靈驗談을 收錄하고 있는데 內容을 분석해 보면 (表一) 가장 많은 것이 延壽, 還陽의 形態로 나타나는데 冥府關係의 說話로 冥府의 일도 現實生活의 延長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表 1)

內容別 分析

冥	府	13
治	病	5
免	刑	4
避	邪	4
延	壽	2
還	陽	2
免	畜	2
科	學及第	1
其	他	3

感應傳의 四〇話中 二三話가 冥府에 關한 것으로 各靈驗談마다 특색이 있고 具體的인 冥府 묘사를 하고 있어 編集할 때 意識的으로 冥府를 強調한 것이라 생각된다. 金剛經이 冥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中國人의 冥府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現實世界의 汚吏와 같은 冥司가 있고 現世인이 밤이 되면 冥界의 官吏가 되기도 하는 現實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入冥談의 主人公은 冥府로 부터 放免해서 돌아와 地獄의 實相을 전한다. 흔히 同名同名이지만 잘못하여 冥府로 들어 갔다가 壽籤에 기록된 자기의 壽命수를 읽고 壽命이 몇年 남았는지를 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地獄을 見學한다.

또한 多少의 罪業이 있는 자는 金剛經 誦經의 功德으로 地獄의 刑罰을 放免하는 데 生前에 誦經했던가, 冥界에서 급히 誦經하던가, 또는 陽界에 돌아와서 誦經할 것을 약속하던가 하여 危機를 면한다. 이러한 誦經의 功德은 信仰이라던가 宗教心이라던가 하는 高尚한 것이 아니고 呪文을 외는 것과 같은 것으로 誦經의 呪術의 인 效果에 의해서 災難을 피한다고 하는 原始的인 功利的인 方法이다.

이러한 即物的인 思考方式 위에 經典信仰이 놓여졌기 때문에 經典의 敎義의 理解는 論하지 않고 誦經의 回數로서 功德의 大小를 헤아렸다고 본다.

### (三) 金剛經感應傳 圖繪

여기에 소개하는 金剛經感應傳은 서울의 한 個人所藏으로 우리나라에서 널리 流通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圖繪感應傳의 중요한 例로서 金剛經信仰의 大衆化의 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感應傳은 帖冊으로 鳩摩羅什譯本金剛經의 뒷부분에 붙어 있다. 앞의 金剛經에는 제1인 앞부분에 變相圖가 한장 붙어있고 感應傳에는 每篇 圖繪를 붙여서 하는데 그 內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信仰의 靈驗談도 흥미롭거나와 특히 板畫가 絶妙하므로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이 感應傳은 刊記가 붙어 있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으며 그 圖繪나 字劃의 묘사수법이 매우 세련되어 中國板本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中國에서 典籍이 刊行되면 곧 우리나라에 傳來되고 있어서 그대로 模刻되는 경향이 많음으로 우리나라의 板本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中國板本 경우라도 韓國에서 오래 流通되었다는 것은 金剛經信仰 大衆化와 밀접한 關係가 있다고 본다.

특히 高麗人들의 典籍에 대한 육구는 대단한 것이어서 北宋의 勅板 大藏經이 開寶 四年(九七二)에 着手하여 一二年後인 太平興國 八年(九八三)에 完成되었는데 八年後인 九九一年(成宗 二年)에 印成大藏經을 輸入해 왔다는 記錄이 있다<sup>①)</sup>. 藏經과 함께 御製秘藏詮도 中國에서 반아 왔다고 하는데 誠庵所藏의 御製秘藏詮이나 日本 南禪寺의 高麗板御製秘藏詮은 이미 一世紀前半의 初彫大藏經의 一部<sup>②)</sup>로 위에 말한 宋의 勅板大藏經을 토대로 하여 板刻된 것임은 이미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例로 보아 中國에서 刊行된 典籍이 별로 긴 時差를 두지 않고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곧 板刻되니 이 感應傳도 中國本을 저본으로 韓國에서 板刻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感應傳은 字劃이 木刻이면서도 마치 주자본처럼 부드럽고 三八枚에 달하는 圖繪는 건물이나 산이나 가구의 묘사에서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보여 줄려는 具體的인 細部 묘사를 하고 있다. 또한 人物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표현되고 動作感이나 얼굴 표정에도 세련된 조각기술과 描寫力을 보여 준다.

이 感應傳의 圖繪와 비교할 수 있는 木刻圖繪로서는 龍珠寺板 父母恩重經變相圖(一七九六年刊)<sup>③)</sup>를 들 수 있는데 本 感應傳은 이보다 조금 올라가는 一七세기 말~一八세기 초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 感應傳을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四〇人의 靈驗談이 있고 圖繪는 三八枚만이 있는데 그 중 九枚만 추려서 그 內容別로 대표적인 것만 紹介하고자 한다.



圖1) 精神文化研究所藏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圖2) 金剛般若波羅蜜多經



圖3) 金剛般若波羅蜜多經(焯煌本)



圖4) 金剛般若波羅蜜多經(誠奄博物館所藏)初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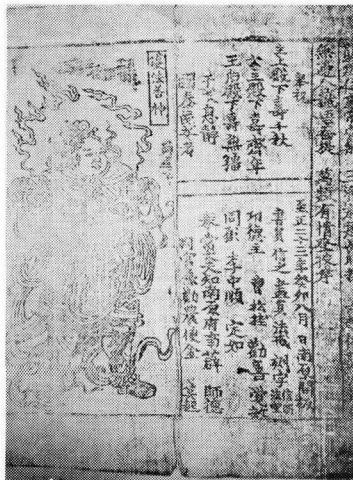


圖5) 金剛般若波羅蜜經(誠奄所藏)末葉



圖6) 談法師

琰法師(圖 6)

이 그림은 四段으로 나뉘었는데 각 그림은 渦雲文의 구름으로 구분되어 있다. 第一段의 그림은 梁天監中(五二〇~五一九)에 살았던 琰法師가 長安 招提寺에서 十一才에 僧이 되었고. 하루는 僧侶들과 함께 相師家에 갔는데 一八才로 夭壽하리라는 占이 나온다. 第二段은 琰法師가 金剛經을 專心持受하면서 분향하는 장면이고 第三段은 한밤중에 一梵僧이 나타나 大乘經을 持念한 功德으로 延壽하리라 하고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다. 第四段은 그후 一九才가 넘어서 相師를 방문하니 놀라며 天相이 이미 없어졌다 하고 佛法的 功德을 찬탄하는 장면이며 琰法師의 壽가 九二才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이다.

陳昭(圖 7)

이 그림은 매우 복잡한 구도를 하고 있는데 唐 武德年間(六一八~六二六)에 살았던 陳昭에 대한 冥府關係의 이야기이다. 陳昭는 江陵人으로 金剛經을 늘 持誦했는데 큰 뱀이 때때로 와서 經을 듣고 갔다는 場面이 맨위에 있고 이 옷집의 力昌이 뱀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고 妖亡하다 생각하여 죽여버리는 것이 그 다음에 그려있다. 力昌은 뱀을 죽인 罪로 閻摩天子에게 불잡혀가 뱀으로 부터 纏身噬囓하는 고통을 받는 場面이 中段 오른쪽에 있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 妻에게 託夢하여 金剛經七卷을 書寫할 것을 請한다. 그러나 그 妻는 가난하여 五才된 아들을 팔아 金剛經을 寫經한다(中段 왼쪽) 그 妻는 金剛經을 寫經하여 바치고 아들생각에 눈까지 멀어 버렸으나 金剛經을 誦念하여 아들과 相面하게 되고 눈까지 뜨게 된다는 內容이다.

蘇仁欽(圖 8)

이 역시 冥府關係의 이야기로 唐 武德年間(六一八~六二六)에 長安에 蘇仁欽이 있었는데 그 父는 前生에 陰府에서 借過受生錢을 바치고 托生하여 富貴福樂을 누렸으나 答還하려고 하지 않아 死後에 廁間中에 떨어져 沙石을 지고 넘새나는 곳에 몸을 담구는 꼴을 겪고 있었다(그림 下段) 仁欽 또한 生前에 豪富를 믿고 慚愧를 알지 못하여 殺生惡業을 行하

니 減算되어서 閻摩天子에게 끌려가 地獄苦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마침 仁欽이 生前에 施財한 金剛經一卷을 受持했던 安國寺僧神敬이 天子께 청하여 仁欽이 還陽하게 된다(그림 上段) 仁欽은 法華經一百部, 金剛經一千卷을 印施하고 水陸大齋를 베푸는데 그 功德의 힘으로 亡父가 地獄苦로부터 得生天界한다는 것이다. 또한 亡父의 말중에는 「나를 위해 田百畝를 寺에 捨入하면 그 功德이 不可思議해서 功이 七祖에 이르고 福이 子孫에게 미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너무나도 現實的인 寺院經濟問題를 잘 표현하고 있다.

金剛經一卷이 瑞雲에 싸여 높이 받들어져 있고 소와 말의 形象을 한 獄吏가 罪人을 무섭게 다루고 있다. 그 아래로는 亡父가 넘새나는 廁間에서 짐을 지고 일하는 모습이 몽둥이를 치켜든 獄吏의 表情과 함께 코믹하게 표현되어 있다.

三刀和尚(圖 9)

罪人이 金剛經의 功德을 얻어서 罪를 면하게 되고 後에 三刀和尚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림은 上段이 거의 畫面의 半을 차지하는데 이는 唐의 崔昭가 壽州刺史가 되어 한 罪人을 처형하는데 세 번이나 칼이 부러져서 斬首할 수가 없었다는 장면이다. 이 처형하는 장면에는 獄吏가 罪人의 진 머리카락을 들어 처형하기 쉽게 가져와 주고 칼이 부러진 모습이 설명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이상히 생각한 刺史가 어떤 術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으니 罪人이 답하기를 늘 金剛經을 持誦했다고 한다. 그 金剛經을 가져오도록 하니 과연 經이 三번 갈라진 흔적이 뚜렷하였다. 그림의 二段은 그 經이 든 函을 가져와서 刺史이하 모든 사람이 두 손 모아 讚歎하는 장면이며 맨 밑段에는 罪人이 사발을 하고 종이 되는 모습으로 刺史는 이 經의 不可思議한 공덕에 감탄하여 그 罪를 免하게 해주고 그 罪人은 僧이 되어 三刀和尚이라 불렀다 한다.

开行立(圖 10)

이 그림은 山에서 일어난 事件을 묘사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事件이 일어난 순서로 묘사된 것이 아니라 山에서 일어난 位置를 따라서 장면



圖7) 陳昭



圖8) 蘇仁欽



圖9) 三刀和尚



圖10) 开行立

이 전개된다.

唐나라의 開行立은 陝州人으로 一字無識인데 長慶年間(八二一~八二三)初에 친구를 따라 金剛經을 받아 읽어 一年이 지난 다음에는 의술수가 있었다. 장사하러 다니면서도 늘 金剛經을 持誦했는데 疋帛三百餘貫을 팔러가다가 欸령을 넘던 중 강도를 만났다. 무거운 짐을 버리고 급히 도망해 嶺아래 깊은 계곡 옆으로 피하니 홀연히 金剛神이 나타나 보았다는. 장면이 원래 이야기의 초두이나 이 그림에서는 山 밑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그런지 맨 밑에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 場面은 맨 위에 表現되었는데 도적들이 뺏은 짐을 열려고 했으나 열 수 없으며 行立을 불러 죽이지 않을테니 열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어떠한 幻術이 있는것이 아니라 金剛神의 神通力의 感應을 받은 것이라 하였고 두손에 친 金剛經에서 瑞雲이 뻗치는듯이 묘사되었다.

中段은 內容上으로는 마지막 場面으로 金剛經을 읽어서 도적을 감동시키는 장면이다.

이 그림의 특징으로는 山의 묘사에 사용된 皴法으로 여러번 반복하여 표현된 披麻皴이 비교적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나무의 묘사도 여러 종류가 있어 다양하고 구체적인 표현의 경향은 이 그림이 中國의 模本을 충실히 複製했음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孫翁(圖 11)

宋 政和中(一一二一~一一二七) 眞川에 石匠孫翁이 있었는데 매일 金剛經三卷을 持念했다. 하루는 三十餘人과 함께 入山하여 鑿石하는데 갑자기 山이 무너져(그림상의 윗부분) 모두 죽고 오직 孫翁만이 바위틈에서 살아났다. 十二年이 지난 다음 파보니 翁이 端坐하고 있는데 容貌가 前과 같았다(그림상의 아랫부분, 자손들이 놀라 절하고 있다) 子孫들이 놀라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자 처음에 餠餅 한 개를 먹은 후 지금 까지 배고프지 않았다고 했다. 前에 持誦하던 金剛經을 가져오게 하니 經上에 餠餅만한 크기의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그림下 여러사람

들과 金剛經의 靈驗談을 이야기하는 장면)

이 그림에서는 圖一〇과 같이 山의 皴法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고 또한 중첩된 山中의 묘사는 그 사이 사이로 서려있는 구름으로 원근의 효과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宋承信(圖 12)

宋 紹興二年(一一三二) 宋承信이라는 사람이 秀州華亭縣에 居하였다. 翻胃之疾로 數年 고생하였으나 諸藥이 不効했다. 하루는 꿈에 一梵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질병은 前世今世에 作罪惡因緣果報인데 金剛經을 奉施 또는 書寫하고 畢世受持하면 陰府官曹가 감동하여 先放魂魄附體하고 다음 良醫를 만나 病이 낫게 될 것이다(그림上) 꿈에서 깨어나 金剛經一千卷을 奉施하니(그림下) 이후 다시 꿈에 金剛神이 나타나(그림中) 一丸藥을 주어 病이 나았고 용도와 정신이 옛같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다.

王氏(圖 13)

宋 紹興九年(一一三九) 明州에 王氏夫人이 있었는데 항상 金剛經을 持誦했다. 그 남편은 멀리 떠나 있고 二十八個月이 지나도 分娩을 할수가 없었다. 또한 多病하여 生産의 深慮가 깊었는데 한 異僧이 와서 金剛經 功德를 說하였다 한다(그림上) 王氏는 金剛經 千卷을 印施하고 僧一千人에게 齋를 베푸니(그림中) 무사히 順産하게 되고 金剛經을 항상 持誦했다. 六一才에 죽어 閻摩天王 앞에서 金剛經을 讀誦하니(그림下) 地獄辛酸之苦가 일시에 멀추었고 極樂世界로 보내어졌다는 이야기.

이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의 묘사로서 특히 열려진 대문이나 책상의 묘사나 건물의 내부구조의 표현에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뒷쪽이 들리는 것 같은 감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表現은 원시적이긴 하나 遠近을 나타내려는 의도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郭承思(圖 14)

紹興府에 郭承思가 있었는데 溫州參軍을 除하고 任地를 떠나 還鄉하는데 金剛經을 佛殿에 供養한 參軍家眷은 큰 風浪을 만났으나 살아남고(그림上) 배의 後倉에 탄 사람과 짐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



圖11) 孫翁



圖12) 宋承信



圖13) 王氏



圖14) 郭承思

기이다(그림下)

波濤의 표현에 있어 바다물이 넘실거리는 모습이 굽고 가는 屈曲線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되었고 波濤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물거품의 묘사는 약간 도안적이면서도 강한 波濤의 효과를 더해준다.

以上的 圖繪를 살펴보면 그림의 기본구조에 있어 이야기 展開에 따라 같은 인물이 여러번 등장되는 說話式 表現이며 이야기의 內容에 따라 渦形의 구름을 이용하여 장면과 장면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림의 展開에 있어 그 사건이 山頂에서 일어난 일인지, 溪谷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따라 이야기 順序와 關係없이 高下에 따라 표시하는 수도 있고 地獄에서 일어나는 일일 경우에는 이야기 순서와는 달리 역시 제일 밑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여준다(圖 8)

山水의 묘사에 있어 皴法을 具體적으로 사용한다면 나무의 종류에 따라 잎사귀의 구별을 한다면 波濤의 넘실거리는 모양이나 물거품 묘사에도 신경을 쓰는 등 관찰력의 세밀함을 보이고 있다.

家具나 建物에서도 그 組部の 장식적인 면의 具體的 表現에 신경을 쓰는바 圖 6에서 보이는 것 같이 창살의 굵은 선이나 祭壇의 각진 다리의 明暗表示는 物體의 立體感을 나타낼려는 의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立體的인 表現은 原始的인 遠近의 구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른바 창살이나 지붕이나 대문의 線이 어떠한 統一感이 없이 제각기의 遠近의 效果를 내기 위하여 線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人物의 묘사는 매우 多樣하여 옷의 늘어진 주름이나 움푹이는 姿勢가 대체적으로 부드러우며 人物의 個性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모자나 수염의 모습이나 손에 들고 있는 持物의 표현이 매우 多樣하다.

이러한 樣式的인 특징으로 보아 이 感應傳 圖繪는 우리나라에서 傳하는 木板畫중에서는 잘 알려진 龍珠寺刊 父母恩重經(一七九六)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이 感應傳의 製作年代가 一八世紀 前半經에 놓으면 큰 착오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中國의 板本이라고 본다면 一七世紀 까지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우리나라에 金剛經이 流通된 年代는 新羅 眞興王代라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經學을 研究하는 方面으로 論疏가 저술되었고 또한 空思想 研究에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三國遺事 卷五 善律選生條에 의하면 金剛般若思想이 靈驗傳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아 民間信仰과 접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學僧이나 學德 貴族이 研鑽을 통하여 理解할 수 있는 空思想을 庶民은 讀誦이나 書寫로서도 空波羅密을 成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좋은 實例라 하겠다.

이러한 信仰의 現實性이 충분히 이용된 것이 靈驗傳의 발전이며 또한 經典에 圖繪와 같은 變相圖가 붙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信仰으로 成就하는 世界를 驗證하는 데 있어서 認識이나 論理的인 단계를 밝아 올라가는 것보다 頓信的 現實態로 바로 눈앞에 보여 주게 한 것이 變相圖에 의한 視覺的 說法이 아닌가 한다.

더우기 여기에서 밝히마와 같이 金剛經感應傳 圖繪의 作者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民間이 쉽게 佛教의 眞은 思想 즉 「應無所住而生起心」하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길을 示現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琰法師의 長壽 行立의 群賊、陳昭의 救蛇、三刀和尚의 이야기 등은 모두가 金剛經을 열심히 持誦한 功德으로서 壽를 누리고 福을 향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글로 表現되어 있다면 글을 모르는 사람은 卽時的 理解가 不可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靈驗傳을 통한 韓國的인 內容의 變相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지만 中國의 事實로서도 民間의 信仰을 啓導한 것은 커다란 功績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傳教方式은 佛教를 大衆化하는데 先人들의 眞은 信仰으로 아로새겨진 熱情이라 생각되며 金剛經의 無我·空波羅密을 전하여 온 회

기적인 作業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佛經의 變相圖를 통해서 韓國佛敎布敎가 어떻게 受容되었는가 또는 變相圖가 韓國人의 信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봄도 韓國民間佛敎研究에 한가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小論에서는 金剛經 및 感應傳의 變相圖에서 信仰의 位階를 이끄는 몇가지 大衆化의 性格을 살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京畿大學)

[註]

- ① 陸楨培 韓國金剛經 流通考 p. 220 「佛敎學報」一一輯 一九七四
- ② 「三國史記」新羅本記卷四、眞興王 三六年 「...陳遣使劉思與明觀來聘送釋氏經論千七百餘卷」
- ③ 「三國史記」新羅本記卷四 眞興王 三七年條 「安弘法師入隋求法 與胡僧毗摩羅等 三僧廻上楞伽勝鬘經及佛舍利」
- ④ 元曉 金剛般若經疏 三卷 義天錄 敦煌文書。  
憬興 金剛般若經料簡 三卷 藏俊錄  
義叙 金剛般若經論述記 永超錄  
道證 金剛般若經疏 一卷 永超錄  
道倫 金剛般若經略記 一卷 永超錄  
大賢 金剛般若經古述記 一卷 義天錄  
大賢 金剛般若經新譯古述記 一卷 義天錄  
大悲 金剛般若經疏 一卷 永超錄  
玄範 金剛般若經疏 二卷 藏俊錄  
玄範 能斷金剛般若經述贊 三卷 平祚錄  
圓測 金剛般若經疏 朝鮮禪敎史
- ⑤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pp. 175~176 一志社 一九七六
- ⑥ 眞諦의 金剛般若經文記 三卷 智儼의 金剛般若經疏 一卷, 元曉의 金剛般若經疏 三卷 等 三二部 七三卷이 있다.
- ⑦ 姚秦 鳩摩羅什譯 四〇三年  
魏 菩提流支譯 五〇九年

陳 眞諦譯 五六三年

唐 玄奘譯

唐 義淨

⑧ 普照國師의 碑文에

「其勳人持誦 常以金剛經 立法」

⑨ 太宗 一年(一四一五)前 安嚴寺住持大師 省琬에 의하여 五家解가 發刊되고 誕解本은 黃守身이 王命에 依하여 鳩摩羅什 漢譯本에 慧能이 解한 것을 世宗 一四(年一四三三) 國譯하였다. 이것을 다시 姜在喜가 註釋印出하였다고

말에도 覆刻 流布가 많이 되었다.

⑩ 松本榮一 「敦煌畫의 研究」附圓 217a

⑪ 刊記: 至正二十三年(一三六三) 癸卯八月日 南原開板. 書員 信之, 畫員 法

戒, 刻子 信明 功德主 曹松桂 勸善 覺敏

同願 李中順 定如

奉常大夫知南府事 薛師德.....

判官兼勸農使 金英起

⑫ 新羅時代부터 시작된 이 道場信仰은 高麗時代에 이르러 일종의 道場 全盛時代를 이루었고 李朝時代까지 면면히 계속되었다.

⑬ 金剛經靈驗傳中 時代的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高麗 〇王 四年(一三七八)에 刊行된 金剛經疏纂要助願錄이다.

⑭ 靈驗의 발생장소 및 등장인물이 모두 中國에 起源을 두고 있으며 靈驗傳 후은 持驗記, 感應傳이라는 名稱을 띤 冊으로 編錄 開刊되어 現在까지 傳承되고 있다.

⑮ 李鍾益 韓國佛敎曹溪宗과 金剛經五家解 p. 197. 「佛敎學報」一一輯.

⑯ 佛書解說事典 第三卷 p. 446

⑰ 高麗史 卷九. 列傳卷第六 韓彥恭 「彥恭奏請大藏經 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 凡二千五百卷 又賜御制秘藏詮: 選」

⑱ Max Loehr Chinese Landscape Woodcut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55~69 Chapter IV. An Eleventh Century

⑲ 龍珠寺板 父母恩重經은 그 變相圖가 絶妙하여 韓國의 木板書中에서는 그대 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金弘道의 그림이라고 알려져 왔으나 拙稿「韓國의 父母恩重經研究」에서 旻寬, 戒初 等の 그림임이 밝혀지고 있다.

⑳ 冥司가 現實世界的의 汚吏와 같은 性格을 갖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